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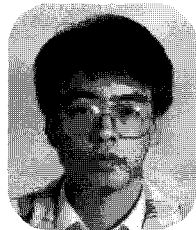


저돈가 시대의 양돈장 경영전략

최 근의 돈가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아 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기 불황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이다.

또한 대일본 수출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기 불황까지 겹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러한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양돈업계는 이제야 말로 농장경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때이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양돈장의 군살을 제거하는 체질 개선 기간으로 적극적인 경영을 한다면 오히려 국내 양돈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 양돈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상기 열거한 사항들은 저돈가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로서 이 중 일부는 불황기를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어떤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주로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1. 알찬 모돈만을 보유한다

대부분의 농장에서 7산 이상의 모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10%를 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20% 이내이다. 이러한 모돈을 포함하여 연속 사고돈이나 저능력 모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도태를 시켜 모돈을 정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많은 모돈을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사육환경 불량 및 관리부실이 유발되고 생산성 저하가 두드러지므로 경영상 적자폭이 증가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이러한 불황기에는 노산모돈 및 능력저하 모돈을 강제 도태하여 정예 모돈군 조

<저돈가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

- 후보돈 입식률이 저조하거나 자가선발이 증가한다.
- 노산돈 및 문제모돈의 비율이 높아진다.
- 방역 치료비 지출을 줄이려 한다.
-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 사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 기록분석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 시설 투자이익이 낮아진다.

후보돈은 돈가에 상관 없이 꾸준히 입식계획에 의거 도입을 해야 한다. 모돈군은 농장 생산라인의 기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최적의 모돈군 조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 과>

- 전체적인 번식 생산성 향상
- 충실한 포유자돈이 생산되므로 허약돈 및 폐사율이 감소되고 비육성적 향상.
- 분만틀에 다소 여유가 있어 분만전후 모돈 관리가 용이하다.
- 결국 모돈 두당 비육돈 출하체중이 늘어나게 된다.

2. 후보돈 확보는 계획대로 한다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모돈은 계획대로 도태시켜야 하며 또한 비육돈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꾸준히 F1 후보돈을 입식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불황기에는 모돈 도태율이 낮아지고 후보돈 입식률이 저조해진다. 또한 후보돈을 보충하더라도 종돈장에서의 F1 구입이 아니라 자가 비육선발 비율을 높여 농장의 유전능력을 낮추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후보돈은 돈가에 상관 없이 꾸준히 입식계획에 의거 도입을 해야 한다. 모돈군은 농장 생산라인의 기반이 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최적의 모돈군 조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3.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불황기에는 보통 백신접종률이 낮아지고 예방 및 치료용 약제의 사용량도 감소하게 되므로 질병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본 백신 및 소독약과 같은 예방용 약품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약제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져 꼭 써야 할 약제를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가 치료약제 사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돈군이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면 이미 생산성 저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폐사 및 위축돈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성장곡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 대책을 예방 위주로 변환시켜야 한다.

- 후보돈 구입시 차단방역 대책 마련 및 외부 차량등에 대한 방역 대책 마련.
- 백신접종 및 소독 강화
- 사육환경 개선 (노후돈사 보수, 환기 및 단열 보강, 깨끗한 사육환경 제공)
- 가급적 올인 - 올아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 환경개선제 사용 : 돈사내 가스발생을 줄여주는 제제, 돈사내 분무소독 강화.

5. 적절한 인력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양돈장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저돈가 시기에는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도 또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사육규모와 시설자동화를 적절히 안배하여 그에 맞는 인력구성을 하도록 농장마다 숙고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모든 200두 규모의 번식·비육·일괄사육 농장의 경우 가족 2인과 직원 1인, 총 3명으로 관리하는 농장의 비율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6. 사료비 절감은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돈 생산비중 60~70%를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이므로 이를 통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폭이 매우 크다.

- 가급적 100일령 이내에서 육성돈 사료로 전환 급여한다.(말기에는 비육후기 사료 급여)



- 자돈 생산과 관련된 번식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번식부분에서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개선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 농장 여건에 맞는 품질의 사료를 선택한다.
- 사료 허실 요인을 색출 제거한다. (사료 통 정비 및 관리 철저, 구서 등...)
- 종돈개량(AI포함)을 통해 사료효율을 높여 결국 사료비를 줄일 수 있다.
- 번식생산성 향상을 통해 두당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사육환경 개선 및 만성 소모성 질병의 예방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여름철, 겨울철을 대비하여 돈사 단열을 철저히 한다.
- 연중 지속적으로 사료급여 상태가 효율적인가를 점검한다. (자체 사양시험 또는 전산 관리를 통해 점검한다)
- 사료 거래를 공동구매 방식과 현금결제, 또는 선수금 조건으로 전환한다.

7. 경영분석의 가치가 높아진다

농장 경영에 있어서의 기록은 크게 생산기록과 금전출납 기록(즉 회계기록)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기록은 다시 번식돈 관리 및 비육돈 관리로 나뉘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농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번식돈 관리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번식돈 관리 기록

자돈 생산과 관련된 번식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번식부분

에서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을 개선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모든 개체번호 부여와 현황판 관리를 시작으로 교배, 분만, 이유, 그리고 모든 전입과 도폐사에 대한 기록을 빠짐없이 한다.

2) 비육돈 관리

• 비육돈의 도폐사 현황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일령대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폐사 손실이 많은지 파악이 용이하다.

폐사 손실은 사료비 부담을 크게 높이게 되므로 통상 이유자돈에서 비육출하까지 폐사율 3% 이내를 목표로 관리하도록 한다. 물론 이런 관리는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폐사 손실뿐만 아니라 위축돈에 의한 손실도 줄일 수 있다.

• 돈사별 전입 전출의 기록으로 농장 전체의 사육현황을 항상 파악할 수 있다.

• 비육돈 생산에 직접 관계되는 사료비, 약품비, 그리고 출하내역을 기록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료의 kg당 평균단가는 물론이고 비육돈 출하 kg당 사료비와 약품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이러한 기록을 매월 분석해 보면 현재의 사료비가 적정 수준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3) 회계관리

회계관리에는 농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



● 비육돈의 도폐사 현황을 기록함으로써 어느 일령대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폐사 손실이 많은지 파악이 용이하다.

역이 포함되며 자산, 자본 및 부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농장의 재무상태가 기록이 되므로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농장의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록관리는 가급적 전산화하는 것이 정확하고 활용도가 높다.

8. 시설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 시설투자는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노후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는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양돈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어 경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가 생산성 향상이고, 그 다음이 생산비 절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양돈**